

융복합시대의 간호직과 성: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

신자현*, 서명희**, 이명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Nursing Jobs and Gender in our age of convergence: Research on Male Nurses

Ja Hyun Shin*, Myoung Hee Seo**, Myung In Le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연구 현황과 동향에 대한 고찰과 양적 자료 및 질적 자료의 분석이 함께 결합되어 진행된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 Research Design)이다. 연구대상은 J도의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 19명과 일개 간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자간호사 29명으로 2015년 3월25일부터 4월 1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수집된 양적 자료 분석은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남자간호사의 간호직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인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것'이 간호업무 수행 시 가장 만족스러움으로 나타났다. 질적 자료 분석결과 남녀 간호사가 남자간호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녀 간호사 모두에게서 남자간호사에 대하여 성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남자간호사, 직무만족, 혼합연구설계, 이미지, 성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is of a 'mixed method' research design: the quantitative analysis covering general data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male nurses, the qualitative analysis being used on interview transcript data. The research subjects are 19 male nurses who work at a hospital and 29 female nurses who are doing Masters degrees in "J" provi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March 25 to April 1, 2015. The quantitativ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WIN 19.0 software while the qualitative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satisfaction of male participants in their profession is higher than average. The item 'growth as a professional' was rated highest as a satisfying aspect of working as a nurse.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points of view of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however, both male and female nurses have a positive view of male nurses which over comes traditional stereotypes.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establish a positive image of nurses across genders.

Key Words : Male Nurses, Job satisfaction, Mixed Method Research Design, Image, Gender

Received 17 December 2015, Revised 4 January 2016

Accepted 20 March 2016, Published 28 March 2016

Corresponding Author: Myoung Hee Seo(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mail: musudari@daum.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정보시대에서 융합시대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지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한 인간중심융복합 및 기술중심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하고 있으며[1], 융합교육(STEAM)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교육을 마련하고 있다[2,3]. 이렇듯 최근 융합시대를 맞아 창의융합형 인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인간중심 융복합 영역에서는 환자를 간호하는 전문 의료인인 간호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4].

최근 의학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 증진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으며[5],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확대 및 성 고정관념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6]. 이러한 결과로 여성 고유의 직업으로 대표되는 간호직에도 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들의 역할변화에 따라 남성들도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다양해진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고용확대 및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간호직에 진출하는 남자간호사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7,8,9].

남자간호사들이 간호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취업의 용이성, 적성, 남자의 희소가치, 직업의 안정성이며[10], 남자간호사의 경우 강한 체력, 객관성, 집중력 등 남성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의 접촉이 적은 특수부서인 마취과,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정형외과, 비뇨기과, 중앙공급실 등에서[10,11,12] 47% 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산부인과나 일부 환자들의 경우 남자간호사들이 간호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나타나 남자간호사들이 실무에 부담감을 느끼며 일하는 경우가 있다[11].

1962년 남자간호사가 처음 배출된 이후 2005년부터 크게 늘어 2014년도 현재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수는 총 7,44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4]. 그러나 전체 간호사 중 남자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만을 차지하여 사회적 현상에 비해 아직도 남자간호사의 비율은 적은 편에 속한다. 이는 간호사는 여성 직업이라

는 일반적인 편견에서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요인이며[15,16], 간호직은 여성들의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남자들이 선택하기 부담스럽고[7], 아직도 한국사회의 보수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직업에 대한 남녀의 성 역할을 구별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보고되고 있어[17], 남자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존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 역할 구별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남자간호사들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남자간호사의 현황 및 각기 남녀 간호사가 생각하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해 파악되어야 한다.

남자간호사에 관한 국외의 연구로는 성 역할의 스톤레스, 조직몰입, 이직에 관한 연구[18], 남자간호사의 업무나 업무 수행 과정에 관한 연구[19], 간호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연구[20], 남자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20]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8,9,15], 남자간호사의 성 역할 갈등[9],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 이미지[7,21], 남자간호대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직무 인식[21],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15], 남자 임상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22] 등에 대해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이러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당자사의 입장에서 연구되었으나, 남자간호사가 생각하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 및 여자간호사가 생각하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 현황 및 동향, 남자간호사 및 여자간호사가 생각하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들의 연구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하고, 남자간호사에 대한 간호직의 선택 동기 및 만족정도, 간호사가 바라보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한다.

둘째, 남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직 선택동기, 간호업무 수행 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 병원 생활 어려움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남자간호사가 생각하는 남자간호사의 주관적 평가 내용을 확인한다.

넷째, 여자간호사가 생각하는 남자간호사의 주관적 평가 내용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하고, 남자간호사에 대한 양적 자료의 서술적 조사연구와 주관적 평가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뷰 내용의 질적내용분석을 함께 결합하여 진행된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 Research Design)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2.1 질적연구방법 적용을 위한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 대한 다수의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과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서 박사과정 중 질적연구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관련 참고문헌들을 숙독하고 혼합연구방법 및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에 의하여 함께 수행되었다.

2.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 중 남자간호사는 J도 내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남자간호사 19명으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이며, 여자간호사는 J도 내 일개 대학원 간호학과의 재학생들 중 2015년 한 학기동안 간호문제세미나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동의한 총 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남자간호사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연령, 결혼유무, 근무부서, 유니폼의 형태, 근무형태, 간호직의 만족정도) 6문항, 간호직 선택 동기 1문항, 간호업무 수행 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 1문항, 병원 생활의 어려움 1문항을, 여자간호사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연령, 결혼유무, 근무부서, 직위) 4문항을 양적자료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질적자료분석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와 비구조적 심층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의에 따라 연구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후 설문자료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얻어진 개인의 정보는 기밀로 간주하고 식별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보장하였으며,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양적 자료는 빈도, 순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내용인 질적 자료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 현황 및 동향

3.1.1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연구 현황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남자들이 간호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6년으로 당시 경성 요양병원 부설 간호원 양성소(서울위생병원 간호학교, 삼육간호보건의학 전신)

에서 간호원(당시 명칭) 양성을 시작하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획기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하였지만, 당시 남자 졸업생은 여자 졸업생과 달리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23]. 1972년 서울위생병원 간호학교를 시작으로 보건사회부로부터 정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남성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삼육대, 전북대 등 4년제 대학에서도 꾸준히 남자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24], ‘금남의 구역’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도 2012년부터 남자에게 개방했다. 2013년 약 6,200여명의 남자간호사가 배출되어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남자간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3.1.2 남자간호사의 이미지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청년 실업률 증가, 간호학과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남학생들의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 또한 임상현장에서도 전문화된 간호영역과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정신과나 마취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남성적 특성이 장점이 되는 간호영역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25].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간호가 정통적인 여성 직업이라는 지배적인 생각으로 남자간호사를 거부하였고 일부 의사들은 의사의 업무를 돕는 보조자로서만 인식하였다. 일부 간호사들도 간호를 여성만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자신들을 남자간호사와 구분하려 하고[26], 남자간호사들 자체도 여자간호사와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이러한 문제는 남자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7].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한결 더 전문직업인으로 다가서며 미국에서는 대표적 의료업체인 존슨앤존슨의 광고에 구인광고 절반 이상이 남성들을 등장시키고 간호 관련 광고에 남성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4].

3.1.3 성 고정관념의 배경

영어 문화권에서는 성 개념을 말할 때 Sex, Gender, Sexuality 등이 사용된다. Sex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개념으로, Gender는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되어지는 성으로 표현되고 있다[28]. 각 개인에 의해 성 역할 행동이 습득되어 행동에 반영되는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의

성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29].

모성애와 따뜻함 보살핌이 대표적인 간호사의 여성적 측면은 여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였으며[30], 남자간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애정이 더 많다’, ‘간호사는 천상여자의 이미지다’, ‘간호사를 선택한 남자들은 여성스럽고 동성애적이다’ 등이다[30]. 지속적으로 남자간호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남자간호사들은 성 역할 갈등으로 인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성 역할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1.4 남자간호사 관련 연구

1) 직무스트레스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간호사라는 직업은 성 역할 갈등이 초래되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존감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주며[31], 미국 남자간호사 4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간호사의 업무적 어려움에 대해 50% 가량이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다고 나타났다[32]. 남자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33], 전문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와 상근근무자인 경우, 간호부에 소속된 경우, 보상이 부적절한 경우에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이직의향 정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정도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향 정도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직무만족

남자간호사들은 환자나 동료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병원내에서 적응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무만족에 어려움을 겪는다[34]. 남자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는 직무 특성은 간호사 경력, 소속, 직급, 근무형태, 근무부서, 급여수준, 근무병원 유형, 병원 설립 형태 등이다[8].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조직몰입이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을 잘 설명해주고, 조직

의 유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남자간호사의 조직몰입과 관련이 있는 직무 특성은 근무연한이 길수록,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4) 이직의도

이직의도란 직무불만족에 대한 반응으로써, 현 직장에서 타 직장으로 옮기려는 의도 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35]. 남자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간호사경력(5년 이내)과 병원 규모가 클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6].

3.2 남자간호사 관점에서의 남자간호사

3.2.1 대상자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남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직 만족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a male nurse (N=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25~29	12(63.2)
	30~34	5(26.3)
	35~40	2(10.5)
Marital status	single	12(63.2)
	married	7(36.8)
Work department	Emergency room	5(26.3)
	Operating room	3(15.8)
	Outpatient clinic	2(10.5)
	other	9(47.4)
Type of uniform	Nurse's uniform	5(26.3)
	Physician's assistant uniform	8(42.1)
	Doctor's lab gown	6(31.6)
Shift pattern	Continuous full-time	10(52.6)
	three shifts	5(26.3)
	other	(21.1)
Rating of satisfaction	Nursing job satisfaction	19(100)

<Table 2> Difficulties in hospital life as a male nurse

(N=19)

Rank	Item	Most difficultn	2 nd Most difficultn	3 rd Most difficultn	4 th Most difficultn	5 th Most difficultn	Weighted total
1	Relationships with female nurses	7	4	3	2	0	64
2	Nursing work itself	6	1	5	3	0	55
3	Workplace-external relationships	4	5	3	2	0	53
4	Prejudice from colleagues, patients, caregivers, etc.	1	4	3	7	0	44
5	Other	0	0	0	0	1	1

3.2.2 간호직 선택 동기 및 간호업무 수행 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

1) 간호직 선택한 동기

본 연구 대상자인 남자간호사가 간호직을 택한 동기를 살펴보면, 1위 '취업에 용이하기 때문에', 2위 '가족, 친지, 선생님의 권유', 3위 '적성과 흥미에 맞으므로'로 나타났다. 4위로 나타난 기타 의견으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서', '일상생활에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잘 몰라서'로 응답하였다.

2) 간호업무 수행 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에 대한 순위

대상자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을 순위로 살펴보면, '지적인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것' 1순위,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것' 2순위, '경제적인 보장이 된다는 것' 3순위,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는 것' 4순위, '남을 돕는다는 점' 5순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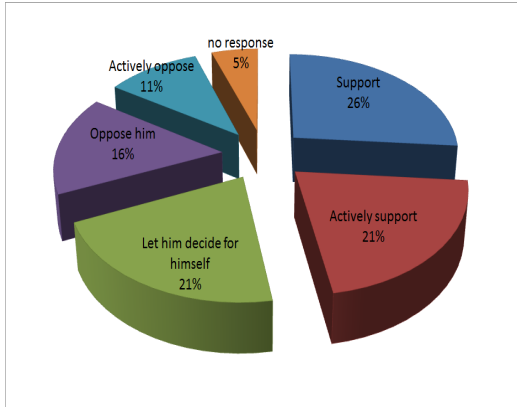
3.2.3 임상업무 중 어려움에 대한 순위

본 연구 대상자인 남자간호사의 병원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후 1위, 2위, 3위, 4위, 5위로 선택된 항목에 각각 5점, 4점, 3점, 2점, 1점의 가중치 점수를 주어 항목별 가중치 합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자간호사들이 병원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여자간호사들과의 인간관계'가 64점으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간호업무'가 55점으로 2순위, '타 직종 직원과의 관계'가 53점으로 3순위, '주위의 선입견-동료, 환자, 보호자, 타 직종'은 44점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3교대'로 응답하였다<Table 2>.

3.2.4 남자간호사 입장: 직업선택에 있어서 남자간호사 추천의향

아끼는 지인이 남자간호사를 한다고 하면 '추천하겠다'가 26%로 가장 많았고, '적극 추천하겠다' 및 '본인의

의사대로 하도록 할 것이다'는 21%, '반대하겠다' 16%,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 11%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5%로 나타났다[Fig. 1].



[Fig. 1] If a person who I really care about told me that he wanted to be a male nurse, I would respond as follows (blank).

3.2.5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 내용

여자간호사에게 바라는 주관적 평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진술문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구문을 찾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선배 여자간호사에게 바라는 점으로 '틀린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남자간호사라기보다 간호사로 봐주세요!', '남자라서 꼼꼼치 못할 것 같은 의심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등하게 바라봤으면 함(성 차별 없이)'으로 남성에 대한 성 고정 관념을 갖지 않고 후배간호사로 대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려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지 맙시다', '인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동료간호사에게 바라는 점은 '서로 아끼고 같은 간호사로 대했으면 합니다', '서로 팀이나 그런 걸 만들지 말고 같은 식구처럼 지냈으면 한다', '함께 대화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으로 '남자라서 일에 대해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독하길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른 진술로는 '의료인이니 남/여 구분 말고 환자를 대해 주세요(예: 유치도뇨 드레싱)'라고 진술하였다.

3.3 여자간호사 관점에서의 남자간호사

3.3.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여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 여부, 근무부서, 직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a female nurse (N=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25~29	3(10.3)
	30~34	14(48.3)
	35~39	6(20.7)
	40~44	2(6.9)
	45~49	4(13.8)
Marital status	single	22(75.9)
	married	7(24.1)
Work department	National general hospital	10(34.5)
	Private general hospital	4(13.8)
	Clinic	1(3.4)
	Long term care facility	1(3.4)
	Other	12(41.4)
Position	Director of nursing	2(6.9)
	Head nurse	2(6.9)
	Charge nurse	2(6.9)
	Staff nurse	12(44.8)
	Other	9(31.0)

3.3.2 여자간호사 입장: 직업선택에 있어서 남자간호사 추천의향

여자간호사들에게 "아끼는 지인이 남자간호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찬성하겠다'는 응답이 93.2%, '반대하겠다'와 '중립'의 응답이 각각 3.4%로 조사되었다.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찬성의 이유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내용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는 3가지로 통합되었고 대표되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남녀(차별)가 없음', 둘째, '남자간호사 구성원들로 인해 간호조직의 권리신장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음', 셋째,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임'으로 진술된 반면, '반대하겠다'는 응답자의 주관적 응답은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고된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립'의 응답에서는 간호사의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건과 실정을 알려주고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융복합시대의 전문직 간호사인 남자간호사들의 연구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하고, 남자간호사에 대한 간호직 선택 동기 및 만족정도, 직무만족 등에 대해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와 남자간호사 및 여자간호사가 바라보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질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서 남자간호사의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남자간호사들이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로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친지, 선생님의 권유'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으므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2] '취업의 용이성' 32.8%, '적성' 17.9%, '회소 가치' 14.9%, '전문성과 안정성' 13.4%, '승진 전망' 7.5%, '경제적 안정' 7.5%, '가족의 영향' 6.0%로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와 유사한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1]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 47.7%, '높은 취업률'이 18.6%, '주변 사람의 권유'가 12.2%의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확대 및 성 고정관념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인식의 변화 및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남자간호사로서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3.21±0.86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 정도를 나타냈으며, 간호업무 수행 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지적인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것',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을 돕는다는 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직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연구에서[21] '육체적, 정신적 희생이 요구되는 직업' 37.7%, '전문적인 직업' 33.7%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남자간호사인 남자 간호대학생이 간호업무 수행 시 육체적, 정신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에서 전문직으로 역량을 갖춘 간호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간호사로서 임상업무 중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여

자간호사들과의 인간관계'가 1순위로 나타났고, '간호업무'가 2순위, '타 직종 직원과의 관계'가 3순위, '주위의 선입견-동료, 환자, 보호자, 타직종'의 순위로 나타난 결과는 Kim의 연구에서[37] 조직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선심을 쓰며 시간을 투자하는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여자동료들과 성향이 달라서 공통된 관심사에서 소외되고 융화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여자동료들과 친해지려는 행동도 조심스럽다는 연구와도[22]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임상현장에서 남자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자간호사가 가까운 지인에게 직업으로 남자간호사를 추천할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적극 추천하겠다' 및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47% 이상으로 나타났고, '적극 반대하겠다' 및 '반대하겠다'는 27%로 나타나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조사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조사한 결과 중상으로 만족한다가 56.9%, 중하로 만족한다는 9.2%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자간호사들이 여자간호사에게 바라는 점으로 '남자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이해',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바라보기',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기', '같은 간호사로 대해주기', '집단 형성하지 않기', '함께 대화하기'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임상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22], 성 차이와 관련된 경험으로 '여성주류 집단 내 적응 어려움', '남성적 특성',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담', '성 고정 관념', '선입견'등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간호사들은 여성조직에 융화되기 위해 약화된 남성 성을 유지하며, 부드러운 남성 성을 강화하고 있다[37]. 이는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자간호사들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 남자간호사가 된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은 여자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에 대한 인식,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연구 대상인 여자간호사들이 현재 대학원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 또한 35세 전후로 다른 일반 간호사들에

비해서 개방적인 사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연구 결과가 간호사 전체 그룹의 입장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결과를 논의해 보면, 응답의 93.2%가 찬성한다는 결과로 남자간호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의견 및 중립의견의 내용도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상황이나 직업 자체에 대한 고됨에 의한 것인지 남자간호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찬성한다는 결과는 3가지 이유로 통합되는데 첫째, 현대 사회가 남녀의 차이가 없어지고 융복합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바 특정 직업이 특정 성별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남자간호사들이 일반 병동 보다는 특수파트에 국한되어 있어 남자간호사들과의 업무상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적 내용들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둘째, 남성으로서의 특징이 장점으로 발휘되어 간호 전문직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남자간호사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남자간호사들의 체력이나 일에 대한 추진력이 여성들로만 구성되었던 그룹 내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자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여자간호사들의 조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간호직의 취업이 용이하며, 간호업무 내에도 오히려 남자가 담당하기에 더 적합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임상 간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자간호사의 활약은[38] 간호영역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때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직업으로도 충분한 장점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간호사에 대한 남자간호사들의 관점과 여자간호사들의 관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자간호사들의 경우는 여성들의 고유한 직업군으로 인식되는 간호직에서 개인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약화된 남성 성, 또는 부드러운 남성 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여자간호사들의 관점에서는 남자간호사의 남성다운 조직력, 추진력 등을 통해 간호직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관점을 보인다. 이렇듯 남자 및 여자 간호사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자칫 남자간호사의 입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간호직 내부에서 긴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이렇듯 남자간호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녀 간호사 모두에게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개대학병원의 남자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수가 작다는 한계점을 갖지만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남자간호사의 문화와 경험 등 내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임상에서만 근무하는 여자간호사 대상이 아닌 여러 분야(임상간호사, 간호관리자, 상담간호사, 대학교수, 시간강사 등)의 여자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여자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은 연구된 관련 선행 문헌이 없어 기존 문헌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 연구를 발판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자간호사의 연구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남자간호사의 실증적인 분석 및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간호사들이 바라보는 남자간호사의 이미지가 확인되었다. 즉, 양적자료분석에서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인되었고, 질적자료분석에서는 남녀 간호사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부드러운 남성상의 이미지를, 여성의 경우에는 결단력, 추진력 등의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남녀 간호사의 관점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혼합연구설계 방법을 통해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조금 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남자 간호사 및 여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관점 차이를 확인한 연

구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 고정관념의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미래의 남자간호사인 남자간호대학생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간호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넷째, 여자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H. Jeon, "A Study of the Strategical Framework for the Confusionence with Methodology of Engineering & the Humanities. Ph.D. dissertation", p.15, Hannam University, 2012.
- [2] "2015 Revised curriculum", <http://goo.gl/sXLRGu> (October 14, 2015)
- [3] E. H. Park, H. R. Park, H. S. Kim,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76-86, 2015.
- [4] G. Oh, M. Lee,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73-185, 2015.
- [5] H. K. Yoon, J. H. Choi, E. Y. Lee, H. Y. Lee, M. J. Park,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Korean Academy Administration", Vol. 19, No. 5, pp.658-667, 2013.
- [6] E. S. An, S. K. Chu,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Korean Academy Administration", Vol. 17, No. 1, pp.22-32, 2011.
- [7] H. Wee, Y. R. Park, M. S. Song, "High School Boys' Images of Men as Nurses. Korean Acad Fundam Nurs", Vol. 20, No. 2, pp.118-128, 2013.
- [8] M. K. Ahn, M. H. Lee, H. Y. Kim, S. H. Jeo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Korean Academy Administration", Vol. 21, No. 2, pp.203-211, 2015.
- [9] K. J. Lee, M. Y. Kim,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6, No. 1, pp.46-57, 2014.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46>
- [10] K. H. Ahn, "Analysis of the Work Experiences of Male Nurse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60, 2008.
- [11] E. S. Ahn.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p64, 2010.
- [12] S. Y. Lee,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s of turn over of male nurs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p86, 2004.
- [13] M. S. Youn, "The study for Nurse Image and Job Recognition about Male Nurse of Male Students in Nursing. Holistic Health Science", Vol. 12, No. 2, pp.95-106, 2012.
- [14] K. S. Chung, "Korea male nurses state" <http://www.nursenews.co.kr> (October 31, 2015)
- [15] E. S. An, S. K. Chu,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Korean Academy Administration", Vol. 17, No. 1, pp.14-21, 2011.
- [16] H. S. Park, H. J. Ha, M. H. Lee,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Role Identity, Gender Stereotyp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2962-2970,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62>
- [17] Y. R. Park,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Korean Acad Fundam Nurs", Vol. 16, No. 4, pp.449-458, 2009.
- [18] Lou JH, Yu HY, Hsu HY, Dai HD, "A study of r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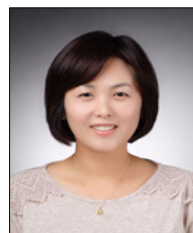
-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ntion to quit among male nurses in Southern Taiw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 15, No. 1, pp.43-53, 2007.
- [19] Fisher MJ, "Being a chameleon: Labour processes of male nurses performing body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5, No. 12, pp.2668-2677, 2009.
- [20] Poliafico JK, "Nursing's gender gap. RN", Vol. 61, No. 10, pp.39-42, 1998.
- [21] M. S. Youn, "The study for Nurse Image and Job Recognition about Male Nurse of Male Students in Nursing. *Holistic Health Science*", Vol. 12 No. 2, pp.95-106. 2012.
- [22] K. H. Ahn, J. M. Seo, S. K. Hwang,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1, No. 6, pp.652-665, 2009.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544571>
- [23] J. M. Park, "Report of untapped human resources - Past and Present. *The Korean Nurse*", Vol. 42, No. 5, pp.16-17, 2003.
- [24] J. M. Park, "750 people 300 working activities of the licensee anesthesia, surgery, emergency room, etc. use field. *The Korean Nurse*", Vol. 42, No. 5, pp.10-13, 2003.
- [25] J. Evans, "Men in Nursing issues of gender segregation and hidden advant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6, No. 2, pp.226-231, 1997.
- [26] J. K. Poliafico, "Nursing's gender gap. RN", Vol. 61, No. 10, pp.39-42, 1980.
- [27] Mclaughlin, K., Muldoon, O. T., Moutray, M., "Gender, gender roles and completion of nursing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30, pp.303-307.
- [28] J. K. Chung, "An Androgynous Approach to the Study of Sex Role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 3, pp. 132-170, 1987.
- [29] Y. H. Kim,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and Learned Helplessness of Korean Youth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dissertation", p.140, 1989.
- [30] Y. J. Mu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ing, male nurses, and nursing as possible career conside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0.
- [31] S. A. Park, E. K. Jo, "Male Gender Role and Adjustment of Korean Men.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8, No. 2, pp.77-103, 2002.
- [32] Mcmillian, J., Morgan, S. A., & Ament. P., "Acceptance of male 58 registered nurses by female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38, No. 1, pp.100-106, 2006.
- [33] H. J. Kim, "Job Stress and Satisfaction among Male Nurses in Daeg. Yeungnam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p.69, 2010.
- [34] Fisher, M. J., "Sex role characteristics of male in nursing. *A Journal for the Australian Nursing Profession*", Vol. 8, No. 3, pp.65-71, 1995.
- [35] Lawler, E. E., "Satisfaction and behavior.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pp.332- 345, 1983.
- [36] J. H. Choi, "Related Factors the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p.59, 2011.
- [37] M. Y. Kim, "An Exploratory Study of Masculinity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5, No.2, pp.37-46. 2009.
- [38] G.G. Moon, "Mr. Nightingale, gimmyoung publishers", 2014.

신 자 현(Shin, Ja Hyun)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기본 · 성인간호
- E-Mail : shinjahyun97@gmail.com

서 명 희(Seo, Myoung Hee)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1년 5월 ~ 현재 : 전북대학교병원 HIV 상담간호사
- 관심분야 : 간호관리, HIV, 교육
- E-Mail : musudari@daum.net

이 명 인(Lee, Myung In)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성인간호, 응급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hjh44@daum.net